

사우디産原油 導入比重 확대 油化 등 合作事業도 추진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의 原油導入 比重을 크게 높이고 아울러 原油精製工場 건설이나 石油化學 프로젝트 등 合作事業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李鳳瑞 동자부장관은 지난 1월 23日 訪韓中인 나제르 사우디石油省長官과 회담후 石油需給의 안정적 차원에서 볼 때 현행 5% 수준인 사우디原油의 국내 도입비중을 20~30%로 올리는 것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회담에서 李長官과 나제르長官은 사우디原油를 바탕으로 原油精製, 石油化學 등 석유하류부분에 공동진출을 적극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추진대상 사업은 합작 정유공장의 국내 또는 사우디 현지의 건설운영, 유화단지의 건설 진출 등이다.

이란 油化단지 건설참여 韓·이란 합동經濟委 합의

이란 석유화학단지 건설공사에 국내기업이 진출하는 등 이란 戰後 복구사업에 우리나라가 대거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月 22日 韓·이란 공동위원회에 韓國측 수석대표로 참석 및 오만, 北예멘 등 中東産油國 2개국을 순방하고 귀국한 李鳳瑞 동자부장관은 「日本の 三井 그룹이 진행해오다 지난 '88년 공사중 단한 반다르 호메이니항의 석유화학단지 건설공사를 韓國측이 완료시키기로 이란 政府와 공식 합의했다」고 밝혔다.

李장관은 또 「이란, 이라크 전쟁으로 피해를 본 발전소 및 강간가드 2단계 공사를 비롯 자동차 제작, 장거리 통신개발 및 서울~테헤란 직항로 개설 등 이란의 戰後 복구사업에 우리정부가 대거 참여할 것을 이란 정부와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 會議에서 大宇그룹은 자동차조립공장을 이란

에 건설 韓國에서 들어온 엔진등 부품으로 연간 2萬대의 자동차를 생산키로 하였다. 그리고 大宇측은 생산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 7萬대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한편 大宇造船은 3億3,000萬달러에 상당한 유조선을 건조, 이란에 수출키로 하였다.

또한 大林産業은 1億5,000萬달러 규모의 강간가드 정제공장 2단계 확장공사를 맡았으며 雙龍建設은 하르그섬 원유저장탱크 5기를 3,000萬달러에 복구키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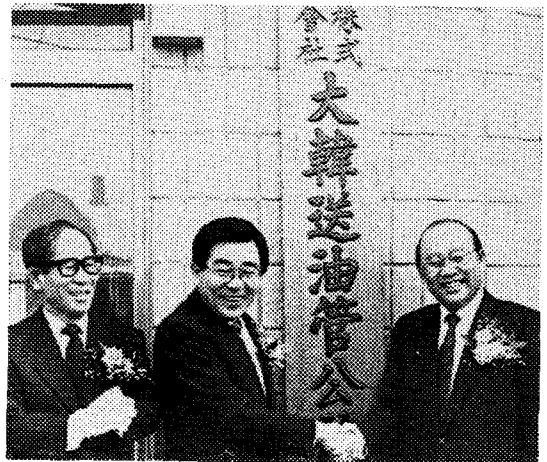
이밖에 이란·이라크戰으로 건설도중 파괴된 반다르호메이니 石油化學團地에 대한 복구사업에 韓國企業이 참여할 경우 우선권을 주기로 하였다.

李鳳瑞장관은 이란정부가 한국업체에 대한 대금 결제를 현금으로 할 것을 약속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하였다.

大韓送油管公社 출범 서초동 하성빌딩에서 현판식

全國 送油管網의 건설과 운영을 전담할 대한송유관공사가 지난 2월 6日 정식 출범했다.

대한송유관공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하성빌딩에서 李鳳瑞동력자원부장관, 李俊燮사장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송유관 건설사업에 착수했다.



發電所周邊地域에 公共事業
전국 49개 지역에 실시

각 발전소가 들어선 古里, 泰安, 靈光, 三千浦, 保寧 등 전국 49개 지역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시설 확충, 도로 및 상하수도 건설, 소규모 공단 조성 등의 公共事業에 금년중 124億7,000萬원이 보조된다.

動資部는 지난 2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發電所周邊地域支援에 관한 法律施行令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금년부터 매년 전년도의 韓電電力販賣收入金 중 0.3%에 해당하는 재원을 韓電 및 水資源公社가 출연 지원금으로 조성하고 發電設備容量에 비해 지역별로 배정한다.

地域別年間資金규모는 新規發電所가 건설되지 않은 지역엔 15億원, 기존부지에 추가 건설되거나 현재 가동중인 발전소 주변 지역엔 10億원 상당선이며 하한선은 500萬원이다.

이는 에너지관련 投資의 적정배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全國土電化事業의 일환으로 지리적 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에 중점이 주어진다.

原油 2億9,641萬배럴 도입
1989년 1年間 13% 증가

지난 1989년에 우리나라가 들여온 原油는 국내 석유소비의 증가로 前年에 비해 13.5%가 늘어난 2億9,641萬 배럴이며 총 도입금액은 49億3,500萬 달러로 전년에 비해 10億8,500萬달러가 늘어났다.

지난 1월 8일 動資部가 밝힌 바에 따르면 국내 석유수요 구조의 저유황 경질화 추세에 따라 地域別로는 東南亞, 中國産이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의 21%를 차지했으며, 中東産은 수송위험의 감소로 전년보다 8.5% 늘어난 72.7%를 나타냈다.

또한 국제석유시장의 지속적인 안정과 極東精油의 정제시설 확충에 따라 현물시장구입 비율이 지난 1988년의 50.2%에서 '89년에는 55.5%로 증가했다.

1991년까지 太陽光發電
代替에너지研究費 확대지원

동자부에서 지난 1월 31일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오는 2000년까지 총에너지 수요의 3% 이상을 代替에너지로 충당한다는 목표 아래 올해부터 代替에너지 研究開發費를 대폭 확대 지원하기로 하였다.

특히 국내 에너지소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原油, 가스 등의 해외 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국민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 太陽光發電시스템과 燃料電池개발을 오는 1991년까지 끝낼 방침이다. 이에 따라 太陽光, 太陽熱 등 代替에너지 개발을 비롯하여 에너지資源 분야의 技術研究開發費를 지난해 443億원에서 올해는 176億원이 늘어난 619億원으로 확대했으며 이 가운데서 代替에너지 개발에는 모두 90億원을 투자키로 했다.

동자부가 太陽光發電시스템과 燃料電池개발에 중점을 둔 것은 해마다 150萬KW씩 電氣消費량이 늘고 있는데 반하여 原子力發電所 건설을 위한 부지마련이 더욱 어려워지고 安全性을 강화할 경우 설비투자 비용이 2~3배가 늘어 경제성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이다.

동자부는 또한 太陽光發電 등 代替에너지 개발에 참여하는 企業에 대해서는 자금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올해부터 소요액의 60%를 석유사업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에너지사업법制定 추진 이용효율향상·환경개선효과 기대

대규모 에너지공급시설을 통하여 에너지이용효율을 극대화시키고 환경개선효과가 큰 공단·주거용 열병합건설을 통한 에너지 공급형태를 뒷받침할 집단에너지사업법(가칭)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動資部에 따르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대단위 택지 및 산업기지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개발초기부터 이에대한 종합적인 에너지공급정책의 수립과 더불어 집단에너지공급은 도시개발계획, 산업기지개발계획, 전원개발계획과 함께 연계추진 되어야 하며 정부의 조정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集團에너지 供給事業은 열원시설, 열공급 배관망 건설등 초기에 막대한 자본의 투입이 요구되어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안이 수반되어야 할 사업이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활성화에 따른 지역단위종합 에너지 공급방안을 수립하는데도 집단에너지사업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포함한 앞으로의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주체, 추진방식, 대상지역, 육성지원방안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확대보급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이 끝나면 수도권 신도시에 건설중인 지역난방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설부, 서울시등 관계부처와 韓電, 가스公社, 地域煖房公社, 에너지管理公團등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지역난방 추진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동자부는 집단에너지 사업법 제정을 위해 위원장에 李元자원개발국장을, 위원으로는 동자부서기관 1명, 건설부, 환경처, 서울시 담당과장, 한전, 가스공사, 대한주택공사, 지역난방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임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월1회의 정기회의를 갖는 것으로 돼있다.

또 動資部, 에너지管理公團, 韓國地域煖房公社의 관계실무자를 구성원으로 한시적인 상설기구인 실무추진대책반을 에너지管理公團에 설치 운영키로 했다.

한편 動資部는 단일법안으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정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일본, 덴마크 등에 실무추진위원들을 파견할 예정이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시킨다는 계획이다.

主去來產油國概念 도입 有事時 원유확보를 위해

政府는 앞으로 원유의 安定的인 供給確保를 위해 “主去來產油國概念”을 도입, 국내 5개 정유사들이 특정 산유국정부 및 석유회사들을 전담하여 평소 긴밀한 유대강화를 통해 유사시 原油確保가 용이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李鳳瑞 동력자원부장관은 1월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국제석유시장 동향을 보면 需要는 계속 늘고 있는데 반해 供給은 한계에 부딪쳐 '99년 이후에는 석유가격상승 및 공급애로현상이 초래될 우려가 없지않다”며 “정부는 이에 대비 금년부터 석유비축시설을 크게 늘리는 한편 國內 精油社들이 주요 산유국들을 하나씩 나누어 맡아 유대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과거와 같은 석유파동에 사전 대비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原子力協力專擔 代表部 비엔나에 설치운영 구상

政府는 原子力 外交協力を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韓國代表部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9일 과학기술처에 따르면 국제사회에서 韓國의 位相이 향상되면서 各國으로부터 原子力協力 제의 및 공동연구를 위한 관심표명이 점증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같은 국제적인 原子力協力 요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國際原子力機構 (IAEA)가 있는 비엔나에 原子力協력을 전담할 代表部 설치방안을 강구 중이라는 것이다.

과기처는 현재 빈에 과학관 1명을 파견 국제원자력동향 파악 및 IAEA 등과 업무연락을 맡고 있는데 날로 늘어나고 있는 原子力의 국제협력문제는 거의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1989年 OPEC 原油生産實績 분석 前年對比10% 増加

'89年度 OPEC原油 생산실적은 21.7백만 b/d로서 前年對比 10% 증가하였다. '89年 평균쿼타(19.25백만 b/d)가 '88年對比 16% 증대되었음을 감안할 때 UAE·쿠웨이트, 나이지리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비교적 쿼타준수에 충실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쿼타초과량(2.5백만 b/d)의 70%가 이들 3개국에 의해 이루어졌었다.

잉여생산능력이 큰 사우디·이라크의 生産自制 노력이 뚜렷이 보인 한 해였다. 이 두 국가는 쿼타점유율 유지(사우디 24.5%, 이라크 14.3%)에 매우 민감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생산량은 1%포인트이상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表 참조). 이란은 전쟁중 쿼타수준에 크게 미달했던 생산수준이 終戰 이후 집중적인 시설복구에 힘입어 쿼타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국가는 대부분 생산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OPEC 쿼타가 확대되더라도 그 물량을 모두 생산해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벌써 인도네시아에서 그러한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表〉 1989年 OPEC 原油生産 실적(백만 b/d)

國 別	1/4 分期	2/4 分期	3/4 分期	4/4 分期	年間	89/88	年平均 쿼 타
알 제 리	0.710	0.710	0.750	0.770	0.735	+13.1%	0.723
에콰도르	0.290	0.273	0.300	0.317	0.295	-4.6	0.239
가 봉	0.167	0.210	0.213	0.253	0.211	+24.2	0.173
인도네시아	1.233	1.200	1.250	1.250	1.234	+10.9	1.290
이 란	2.833	2.822	2.833	2.960	2.862	+26.8	2.747
이 라 크	2.640	2.750	2.833	3.017	2.811	+7.3	2.747
쿠웨이트*	1.333	1.700	1.800	2.100	1.735	+18.8	1.079
리 비 아	1.040	1.100	1.100	1.217	1.115	+10.1	1.079
나이지리아	1.450	1.533	1.783	1.717	1.622	+15.2	1.410
카 타 르	0.362	0.350	0.367	0.400	0.370	+6.9	0.325
사 우 디*	4.717	4.927	5.115	5.650	5.105	+2.5	4.708
U A E	1.552	1.633	1.967	2.367	1.882	+23.9	1.028
베네주엘라	1.640	1.750	1.750	1.800	1.735	+5.0	1.702
합 계	19.967	20.958	22.062	23.817	21.712	+10.1	19.250

* 중립지대 生産分 50% 포함

蘇서 濃縮우라늄 輸入 國內 所要量 27% 充當

정부는 國內 原子力發電에 쓸 核燃料의 상당부분을 금년부터 蘇聯에서 직접 도입, 美國 프랑스등 西方國에 편중된 핵연료 輸入市場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月 5日 오후 李炯九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北方 經濟政策實務委員會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動力資源部는 이날 발표를 통해 蘇聯의 原子力 輸出公團이 '88년말부터 우리정부에 原電用濃縮우라늄의 제공의사를 제시해왔다고 밝히고 정부는 수입시장다변화를 통해 핵연료를 싸고 安定的으로 확보키위해 蘇聯측 제의를 수락,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蘇聯으로부터의 濃縮우라늄도입은 價格이 싸다는 經濟的 측면은 물론 그동안 美國, 프랑스등 西方 강대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해 온 國內核燃料供給을 상당부분 蘇聯으로 돌릴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양국간 信賴를 전제로한 長期供給契約이란 점에서 韓蘇간 정치적 접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蘇聯에서 도입케될 核燃料은 우라늄 235가 3.5% 함유된 原電用 濃縮우라늄으로 계약기간은 금년부터 오는 '99년까지 10년간이며 도입가격은 韓電이 美國으로부터 현재 도입하는 濃縮우라늄의 kg당 1천60달러수준보다 크게 낮은 가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입물량은 國內所要物量('89년기준) 145톤의 27.6%인 年間최대 40톤 규모로 蘇聯측은 판매대금의 30%를 우리상품으로 대응구매하는 조건을 제시, 年間 약6백만달러 상당의 국내 전자제품을 사갈 것으로 알려졌다.

소련의 개방화 정책에 의하여 이와같은 물량의 輸入 제의로 우리나라는 原子力 核燃料의 수입에 다변화를 기하고 저렴한 가격의 安定的 供給이 기대되고 있다.

歐美에서 原電反對주춤 主要原電國의 必要性 인식

原子力發電에 대한 安全性 問題·廢棄物 處理 등 原電에 대한 우려의 소리속에서도 세계각국에서 原電은 「불가피한 현실적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는 趨勢다. 美國의 스리마일(TMI)原電사고, 蘇聯 체르노빌 放射能 누출사고등을 계기로 '80년대를 풍미한 反原電·反核 무드는 石油·石炭 등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지구온난화·산성비 등 지구 環境汚染 問題와 石油危機가 다시 올지 모른다는 우려등으로 진원지인 歐美에서 점차 퇴조기미를 보이고 있다. 또 그간 原電의 安全性과 經濟性을 높이기 위해 기울여온 노력도 原電에 대한 시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原電에 대한 불안감으로 日本·臺灣 등에서는 反原電 여론이 새삼 공감을 얻고 있고, 각국마다 原電事業에 대한 國民的 합의를 끌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현재 가동 중인 세계 原電은 총 4백 23기로 여기에서 全體電力需要의 17% 수준인 3억 3천 여만 KW('88년 기준)를 供給하고 있다. 주요 原電國들은 최근 原電의 必要性을 인식하는 변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石油基金징수 당분간 중단 原油價상승 원切下에 따라

動資部는 지난 1월 31일 국제원유가가 오르고 원화환율도 美달러에 대한 切下추세가 계속되자 지난 '79년부터 줄곧 거두어오던 石油事業基金을 징수치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送油管建設, 에너지 이용合理化事業 등 石油事業基金을 財源으로 하는 기존 에너지관련 事業들의 축소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石油事業基金은 국내원유가를 정할 때 기준으로 삼은 國際油價水準('86년 5월 이후 현행 OPEC 공식가인 배럴당 18달러)보다 각 정유사들이 실제원유를 사오는 평균도입가격이 더 싼 것 만큼을 그때그때의 환율수준을 감안해 정부가 거두어들이는 것으로 징수를 중단한다는 것은 國際油價, 환율이

올라 정유사들의 실제 도입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것이다.

動資部는 2月中 도입된 원유의 예상단가가 배럴당 17.91달러로 1월의 17.20달러보다 0.71달러나 높아진 데다 적용할 환율도 달러당 688원으로 적용 기준 환율 670원보다 18원이 올라 이를 감안하면 基準油價와의 차액이 없어 당분간 석유기금징수는 없다고 밝혔다. 國際油價가 크게 하락했던 '86년 10월께에는 한때 배럴당 15.61달러까지 거두어 들었던 石油基金은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배럴당 7.61달러를 징수했었으나 지난해 말부터의 國際油價 급등에 따라 1989년 12월 2일 1.28달러로 축소된 데 이어 12월 30일부터는 다시 0.98달러로 줄어들었다.

「제3의 石油波動」경고 OPEC총장 “供給不足 해결해야”

세계의 石油需要가 공급을 앞지르는 상황을 막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제3의 오일쇼크」事態가 發生할 수도 있다고 수브로토 OPEC(석유수출국기구) 사무총장이 지난 3월 8일 경고했다.

수브로토 사무총장은 아랍어 신문 알이티하드紙와의 인터뷰에서 「石油價格은 供給조절기능이 있기 때문에 石油供給을 保障할 수 있는 조치가 당장 취해지지 않을 경우 가격은 폭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暖房LNG교체 石油事業基金 150億 확보

大氣汚染을 줄이기 위해 오는 9월부터 도시가스 사용이 의무화되는 아파트 난방시설 교체자금에 전액 용자된다.

서울시와 環境處는 6일 현재 경유나 벵커C유를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중앙난방시설을 도시가스 공급시설로 대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아파트 1개 단지에 3억~4억씩 들 것으로 예상, 석유사업기금에서 1백 50억원을 확보, 연리 5%, 3년 균등 상환조건으로 전액 용자해 줄 계획이다.



韓國重工業株式會社
安千學 社長, 徐錫天 副社長 選任

韓國重工業(株)는 지난 2月 9日 理事會 및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안千學 前 雙龍重工業(株) 社長을 韓國重工業(株) 新任 社長으로 選任 하였다.

또한 안千學 社長은 지난 2月 19日 개최된 韓國 에너지協議會 第13次 理事會에서 韓國에너지協議會 및 WEC韓國 國內委員會 理事로 選任 되었다.

그리고 韓國重工業(株)는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조직과 인사체제를 정비, 개편하는 한편 3月 13日 副社長에는 徐錫天 韓電 專務를 임명하고, 이에 앞서 2月 19日 康基壽 常務를 승진 발령하였다.

浦項綜合製鐵株式會社
名譽會長, 副會長制 신설

浦鐵은 지난 3月 6日 株主總會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명예회장 정관개정을 통해, 부회장 및 전무제도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黃慶老 상임고문을 代表理事副會長으로 선임하고 韓榮洙, 劉常夫, 高學峰 상무를 專務로 각각 昇進 발령하였다.

雙龍精油 株式會社
會長 李承源, 社長 張錫煥 任命

雙龍그룹은 지난 1月 18日 쌍용정유 대표이사 회장에 李承源 쌍용정유 사장을 임명하고, 雙龍精油 社長에는 張錫煥 그룹 종합조정실장이 승진, 기용되었다.

現代엔지니어링(株)
社長에 鄭夏五 副社長 승진

現代엔지니어링(株)는 1月 8日 鄭夏五 副社長을 社長으로 승진 발령하였다.

大韓石炭公社 任員 昇進
副社長에 申鉉禹 理事 任命

대한석탄공사는 지난 1月 18日 申鉉禹 理事를 副社長에 昇進 發令하였다.

(株)大宇엔지니어링 任員 昇進
副社長에 周榮旭 專務 승진

(株)大宇엔지니어링은 지난 1月 22日 周榮旭 專務를 副社長으로 昇進 發令하였다.

曉星重工業 株式會社
專務에 李承兆 昇進

曉星그룹은 1月 20日 효성중공업 전무에 李承兆 씨를 昇進시키는 등 승진 28명, 전보 2명 등 모두 30명에 대한 임원진 인사를 단행했다.

京仁에너지 株式會社
玉鐘錫 專務 任命

京仁에너지(株)는 2月 19日 玉鐘錫 理事를 專務로 昇進 發令하였다.

鮮京그룹 人事
(株)油公, (株)油公가스 專務 任命

鮮京그룹은 지난 2月 21日 이사급이상 임원 55명에 대한 人事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株)油公 專務에 殷墩杓, 安明柱 理事를, (株)油公가스 專務에는 趙源天 理事를 각각 昇進 發令하였다.

會員社本部長級 人事

韓國가스公社(1月 16日) 生産供給本部長 石泳大
韓國科學財團(2月 10日) 事務總長 姜洪烈
에너지管理公團(2月 20日) 地域暖房本部長 金鍾承
韓國電力技術(株) 技術開發本部長 이문국
原子力事業團長 신재인
水火事業團長 정금철